

1. 제발 모든 공고에 지원하라.
2. 평소에 말주변을 길러야 한다.
3. 학점은 3.5 이상으로 충분하다.
4. 자격증과 어학 성적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5. 관심 분야 학부 연구생을 노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6학번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LG디스플레이 대형사업부 공정/장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조연이라는 것을 드릴 위치라는 점에 의구심이 들지만 저의 이야기로 후배님들께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당부드리고 싶은 말
 2. 스펙
 3. 취업 준비
 4. 학교 생활
-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당부드리고 싶은 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스스로 쫓아서 올라온 공고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쳐야 본전이니 **모두 지원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의 동기나 후배들을 보면 아직 스펙이 부족하다, 학생 신분으로 더 놀고 싶다 등의 이유로 수많은 공고들을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날리는 일이 허다 했습니다. 솔직히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 어차피 지원해도 떨어지겠지, 이 회사는 내 관심 분야가 아닌데?, 붙어도 안 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라면 지원해서 떨어져도 본전, 합격한다면 이득인 상황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인적성 시험, 면접 등의 채용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차피 목표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 위해서라면 거의 비슷한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지레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에 지인과의 대화든 과제 발표든 일상에서 **말주변을 기르시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운 좋게 처음 지원한 회사 공고에서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의 면접 질문들이 틀에 갇힌 질문들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로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지원 공고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경험이 중요한 면접 경험 또한 없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들, 압박성 상황 제시 등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평소의 제 말주변이 정말 크게 작용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주변을 길러놓는다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는 등의 돌발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르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스펙

우선 저의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크게 **전체 학점 3.5 , 전공 학점 3.78 , 어학 토익 스피킹 Level 6 ,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부생 발표 우수상 , 학부 내 리더십 캠프의 공과대학장상 , 학부 내 비교과 프로그램 “자연 모방 해커톤”의 국립생태원장상** 이렇게 보유했습니다. 거창하게 보여도 공과대학장상, 국립생태원장상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그저 수상기록을 채우는 용도 뿐입니다. 토익 스피킹도 서류를 제출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면접 진행 전에 획득한 것이므로 서류에는 작성하기도 부끄러운 “토익 590”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학점, 어학, 자격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의 스펙을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학점은 대기업은 3.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 3.5 이하는 모르겠지만 3.5 정도는 학점 공격 질문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학 성적 또한 토익 850점 이상, 토익 스피킹 Level 7 이상 등의 성적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저 또한 서류에는 정말 보잘 것 없는 토익 590점이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공격 질문이 들어왔지만 면접 전에 확보해놓은 토익 스피킹 성적을 언급하며 인정하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치니 개의치 않고 넘어갔고 오히려 저라는 지원자를 면접관으로 하여금 뇌리에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자격증은 학점, 어학에 비해 더더욱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다면 가점은 되겠지만 획득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격증만 획득하시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준비

1) 자소서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제가 지원한 두 회사 자소서를 각각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작성한 것으로 서류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험 하나하나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화려한 스펙보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정말 사소한 경험에서 느낀점을 통한 깨달음, 다짐 등이 더욱 강력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성 요령인데 절대 미괄식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란 서술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소서 하나하나를 다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꼭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첫 줄에 요약하여 작성하고 스토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관들은 첫 줄을 읽고 흥미가 생겨야 다음 줄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 때, ~를 하면서, ~를 통해 스토리 먼저 풀다가 마지막 줄에 결과물로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한다면 면접관들은 마지막 줄을 읽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족했다, 보잘 것 없지만 등의 불필요한 자기를 깎아 내리는 내용은 작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소서는 자기를 뽐내기에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 깨달은 점, 얻은 점, 새로운 다짐 등의 내용을 자신있게 마음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성공, 실패, 도전 등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경험을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경험을 성공, 실패, 도전 등의 내용으로 조금씩 각색하여 기억하고 게시길 당부드립니다.**

2) 인적성

저는 채용 프로세스가 1주일 간격으로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어서 인적성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운 좋게 문제집 한 권을 2회독 하고 응시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평소에 미리 인적성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누구나 요령이 생겨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단계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성 검사는 리더십, 협동 등의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절대 계산적으로 의식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읽어보고 정말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솔직히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겁니다.**

3) 면접

저는 1차 직무 면접을 준비할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 전공 심화 내용을 공부하고 2차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저 혼자 예상 질문을 약 60개 정도 만들고 답변하는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면접왕 이황, 인싸담당자, 전민혁 등의 채널을 통해 짧은 클립 영상을 틈틈이 보며 참고하여 준비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딱히 중요하지도 않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만약 100개의 예상 질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101번째 질문부터 받는 것이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본을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이 질문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작성한 이 대본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조합한다면 막히지 않고 답변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교수님을 찾아 뵙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임원부터 사원까지 최대한 연락처를 구해 제가 일일이 연락드리고 조언을 얻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발로 직접 뛰시길 바랍니다.

4) 랜턴십

해당 프로세스는 제 공고를 끝으로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생략하겠습니다.

4. 학교 생활

저는 매 시험마다 벼락치기하고 정말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취업을 하였고 때문에 저랑 비슷한 분들도 본인이 모범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제가 도움을 얻은 학교 생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학부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다면 잠깐이라도 학부 연구생을 지원하여 연구에 참여해보고 장비를 직접 구동해보는 등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제 교수님께서 학부 연구생을 두시지 않으시지만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많았고 디스플레이용 TFT 연구를 하시는 것을 캡스톤을 통해 알고 직접 찾아뵈어 적극적으로 요청드렸고 그 결과 4학년 여름방학 2개월 동안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으며 적극 활용하여 4학년 2학기 9월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학부 교수님들 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6 sigma 등의 자격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얻어갈 것들이 많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다보니 정리도 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쓴 것 같네요.

혹시라도 면접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울림 취업 상담의 “박혜경” 선생님께서 제 모든 면접 내용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연락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취업 풀 스토리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010-2080-5486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후배님들의 창창한 앞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